

문화

2010 문화계 결산

공연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던 2010년 공연계 화두는 5·18 30주년이었다. 그중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광주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공연돼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공연으로 되살아난 5·18 30주년

올해 지역 공연계의 화두는 5·18 30주년이었다. '오월 광주'는 뮤지컬, 발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되살아났다.

올해 처음 실시된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가능성과 동시에 숙제도 남겼다.

국제공연예술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티켓 판매는 저조했지만 러시아 정통 사실주의 연극인 '스몰' 등 광주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작품들을 소개, 공연 애호가들에게 높은 평점을 받았다.

광주 대표하는 뮤지컬 '화려한 휴가' 서울 무대에 '다시래기' 샛포로 공연... 월드뮤직페스티벌 '호응' 내달 출범 '광주문화재단' 지역 문화계 최대 이슈

넉타입 등 초연 때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게 필요하다. 시립예술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2010년은 해외 진출이 눈에 띄는 해이기도 했다. 광주시향은 도쿄와 오사카에서, 100회 공연을 무대에 올린 광주시립 무용단은 중국 항주와 북경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광주연극협회가 무대에 올린 '다시래기'는 샛포로에서 공연돼 화제를 모았다.

광주시향의 구자범 상임지휘자가 내년 3월 경기도립오페라극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지역 클래식 팬들의 아쉬움을 산만 면 시립극단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40대 예술감독을 영입, 대규모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수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作名·鑑定專門哲學院 010-7671-5623



'느티나무숲'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산타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시연 골라 특별한 선물 '장바구니 전' 대인시장 활동 작가들의 작품 전시·판매

2010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느티나무숲'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펼친다. 24일 오후 5시부터 대인시장 아트스페이스 '담'에서 펼쳐지는 아트데이.

선물은 대인예술시장 문화레지던시사업으로 활동하는 솔롱겔스의 유자차, 임용씨가 만든 앨범, 컵받침, 물방울무늬 스카프 등 아트스페이스 '담'에서 준비했다.

인한 상보도 소개된다. 또한, 이날 이벤트와 함께 미니파티도 열 계획이다. 문의 062-233-1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각으로 보는 현대인들의 일상

위재환 초대전, 30일까지 무등갤러리

조각가 위재환씨가 오는 30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 갤러리가 젊은 작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이번 초대전에서 그는 '몽상가들의 도시'를 주제로 도시인들의 다양한 일상을 담은 조각품을 선보인다.



'몽상가들의 도시'

조진태 5·18재단 사무처장 두번째 시집 출간

조진태(49)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이 두 번째 시집 '희망은 왔다'(문학들 펴냄)를 출간했다. 첫 시집 '다시 새벽길' 출간 후 11년만이다.



특히 시집에는 역사적 격동기를 열정적으로 같이 견뎌냈던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애절한 감성이 절절하게 배어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27일 오후 6시30분 5·18기념문화센터 대강홀에서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지마 톤즈' 관객 20만 돌파

광주극장·롯데시네마 상영

고(故)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그린 영화 '올지마 톤즈'가 관객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는 '위남 소리'에 이은 2위의 기록이다. 지난 4월11일 KBS 1TV로 방송된 'KBS 스페셜-수단의 슈바이처'를 영화로 재편집한 '올지마 톤즈'는 지난 1월 대장암으로 48세에 별세한 이태석 신부의 삶과 죽음, 수단에서의 봉사활동을 다룬 것이다. 지난 9월9일 전국 13개 상영관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평균 객석 점유율 75%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관객 10만 명을 모았기에 힘입어 개봉관이 54개로 확대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현재 롯데시네마와 광주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올지마 톤즈'는 '2010 올해의 좋은 영상물', 제1회 'KBS 감동대상', 제20회 한국가톨릭 매스컴상 대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KEITH HARING 광주시립미술관 2010. 12. 8~2011. 2. 27. 팜파트 슈퍼스타 키스해링展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갤러리어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